

세 · 계 · 속 · 의 · 녹 · 색 · 침 · 단 · 도 · 시

아산뉴스

Smart Asan
ASAN CITY NEWSPAPER

MAY 2010 vol. 190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고장, 서로 믿고 함께하는 도시

발행일 2010년 5월 3일(월요일) | 발행인 아산시장 | 발행처 공보담당관실 | 주소 336-701 충남 아산시 시민로 124(온천동1626) | 전화 (041)540-2639 | 팩스 (041)540-2162



▲ 온양온천역 광장 분수에서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다.

이순신장군 나라사랑정신! 이순신축제로 되새기며...

제49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5월14일부터 5월18일까지

제49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5월 14일(금)부터 5월 18일(화)까지로 일정을 변경하여 신정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 조국을 위해 헌신을 마친 46용사(勇士)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유가족 및 전 국민과 애도의 기간을 함께하면서 일정과 프로그램을 변경 개최토록 했다.

축제프로그램은 화려한 공연 등을 축소하고 청소년들의 교육, 체험, 이순신

장군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2010 영웅의 부활 아산에 그가 돌아왔다" 총무공해상대전(e-sports 대회)이 펼쳐지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설"이라는 3D 영상상이 주세영상관에서 30분 간격으로 상영 된다.(일정별 프로그램 참고)

백의종군하던 장군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보는 백의종군 걷기대회가 온양온천역에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아름다운 신정호까지 진행되고 남산터널은 빛의

터널로 작품화 되고 출발 이순신 서바이벌도 흥미로운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다.

특히 제49회 성웅이순신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정신을 되새기며 뛰어난 지략과 리더십으로 국난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했던 장군을 본받고 46용사들의 숭엄한 구국정신을 한데 모아 국민대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춘 축제다.

아름다운 호수 신정호! 역사와 리더십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장!

그곳으로 가족의 손을 잡고 발걸음 옮긴다면 즐거움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아산시민, 바로 나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는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14(금)

시간	프로그램
11:00-18:00	서바이벌대항전
12:00-13:00	오감체험왕 선발
13:00-14:00	퓨전국악
14:00-15:00	시민퍼레이드
15:00-16:00	배뱅이굿
17:00-18:00	모닥불체험
18:00-19:00	개막식
19:00-20:00	인기가수 초청공연
20:00-21:00	

5. 15(토)

시간	프로그램
10:00-13:00	씨름대회
11:00-18:00	서바이벌대항전
12:00-13:00	전통혼례
14:00-15:00	경기도립무용단공연
15:00-16:00	오감체험왕 선발
17:00-18:00	모닥불체험
18:00-19:00	주제공연
19:30-21:00	
20:00-21:00	

5.16(일)

시간	프로그램
11:00-18:00	서바이벌대항전
12:00-13:00	경찰교육원 악대공연
13:00-14:00	배뱅이굿
14:00-15:00	아산예총 무용공연
15:00-16:00	한울고 마칭밴드공연
17:00-18:00	퓨전국악
18:30-19:00	남원시립국악단공연
19:00-19:30	기천무
19:30-21:00	주제공연

5.17(월)

시간	프로그램
11:00-18:00	서바이벌대항전
12:00-18:00	오감체험왕선발
13:00-14:00	아산시립합창단 공연
14:00-15:00	도전이순신역사골든벨
15:00-16:00	한울고 마칭밴드공연
17:00-18:00	모닥불체험
18:00-19:00	주제공연
19:30-20:00	
20:00-21:00	

5.18(화)

시간	프로그램
11:00-18:00	서바이벌대항전
12:00-18:00	오감체험왕선발
13:00-14:00	사생대회
14:00-15:00	백의종군걷기대회
15:00-16:00	성남시립국악단공연
16:30-17:30	합기도 '통혼'
18:30-19:00	개막식
19:30-20:00	
20:00-21:00	

신정호수 공연일련

제49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은 시간도 있습니다.

▶ 상설프로그램

3D영상관	출발!이순신서바이벌	전통저장거리
e-Sports대회	기네스도전 성웅의 길	친환경 농·특산물 및 기업홍보관
이순신도검체험관	시민의 빛 터널 상설전시	역사거리점 및 점점 등

▶ 기타프로그램

어린이수영장	사진전, 미술전	산책로(하)	어린이미진수상작전시
체육공원	6.25사진전, 시화전		깃발전, 청사조형
신정호	가북전, 반죽전 유등전시		



우리 마을에서도 공연을 볼 수 있어요~



시가 208인치 전광판과 음향, 무대장치까지 완벽한 공연차량을 제작, 제49회 아산성충이순신축제 개최 기간 동안 그 첫무대의 막을 올린다.
무대규격 49m에 6개의 스피커, 영상

편집장비 등 다양한 기능의 장비를 갖춘 준비되어 있는 움직이는 공연차량은 축제 기간 동안 읍·면·동을 순회하며 축제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안내하고 인근 시·군까지 운행하여 축제관광객 유치

공연과 홍보를... 움직이는 공연차량!

축제 개막식도 승계...

시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공연 차량이 찾아갑니다.

전시민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 기대!

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개막식이 열리는 5월 14 일에는 미처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이나 관광객을 위해 온양온천역에서 개막식의 실시간 중계계획도 가지고 있다.

시는 움직이는 공연차량이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찾아가는 음악회의 이동무대, 박람회, 타 지역 축제 등 대내외 행사 시 우리시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에 나감 계획이어서 앞으로 공연차량의 활용에 기대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시내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나 음악회, 전시회 등의 소식을 영상으로 편집 읍·면·동 순회 홍보도

실시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건강정보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시청 알리미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공연차량에 거는 기대는 정보를 실어 나르는 살아있는 홍보매체 뿐만 아니라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며 공연을 만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을 시민에게 선사할 수 있어 문화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팔고루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도시 아산을 만드는 기반을 다지면서 문화를 통한 시민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찾아볼 만 하다.

아빠~ 우리 토마토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주말농장 2,400여 농가 신청, 인기리에 추진중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주말농장 첫개장식이 농장회원 90여 가족이 협식, 김춘등에 위치한 정충주말농장에서 개최됐다.

2010년도 주말농장신청자는 2,400여 가족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 됐으며, 주말농장은 연차 프레시안, 허안마을, 배반자이, 소방서 등 총26개소 74,373㎡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에게 전원생활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가족 간 농사체험을 통해 정을 나누며 주민 간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과 우리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지난 2005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회원별 분양 면적은 16㎡씩이며, 오는 11월까지 고추, 토마토, 상추, 고구마, 쪽파, 배추 등 40여 가지의 채소를 자율적으로 재배하게 된다.

또한 처음으로 농사체험을 하는 회원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주말농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농작물 재배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주말농장에서는 가족과 함께 흙을 만지고 흙 냄새를 맡으며 농사일을 하면

서 가족간 정을 느끼고 사람을 키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랑공장이 되고 있다.

칼/문

선거와 주인노릇



순천대학교 총장 송동식

6.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흔히 '민심은 곧 권심'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어떤 경우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하늘의 명령으로 알고 성실하게 따르겠다는 엄중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같은 입으로 '국민 여론은 우리 편'이라는 말도 북하면 내뱉곤 한다. 그러고는 손 툴릴 틈도 없이 여러 사활 가늠 해집는 일들을 참 쉽게도 저지른다. 그럴 때마다 특정 현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치인들이 원하는 민심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들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기에 그렇게 확실하게 민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아예 민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민심을 존중하겠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속한 정파와 생각이 다른 민심까지 존중할 생각을 하지는 않는 셈이다. 그런데 정치의 관점이 이렇게 '나와 나'를 가르치는 식으로 단순해서야 이 사회가 정치 선진화를 이룰 만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극단적으로 다른 주장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틀의 틀이 깨져 내고,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정치의 기술이 아니겠는가. 때마침 총통하고, 제 앞만 바라보는 최근의 정치 현실이 답답하다.

아무튼 합부로 민심을 입에 올리고 그 민심이 내 편이니 나는 내 뜻대로 하겠노라 하고 공연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는 위험한 생각을 하는 정치꾼임이 분명하다.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항상 삼가는 태도로 시간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민심을 묻고 또 물을 일이지 제 확신을 곧 하늘의 뜻이라고 되는 양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강한 자기 확신

을 공동체의 분명한 미래상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이들을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헛된 약속이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6월의 선거는 이러한 냉철한 국민의 의사를 드러내는 값진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민심의 주체인 유권자 자신의 반성도 필요하다. 주인 된 자가 스스로 주인답게 행세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머슴이 주인인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이처럼 정치꾼들이 합부로 민심을 농락할 수 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민심의 주체들이 제 역할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주인노릇을 어떻게 했기에 전국의 그 많은 단체장들이 일기조차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을 하는가 말이다. 사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잘못, 무관심을 하나의 표현으로 착각한 잘못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인노릇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선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내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의심하지 말고 그냥 참여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선거판

이 건강해질 수 있다. 100이 참여해야 할 선거에 그자 30 정도가 참여할 것이 확실하다면 정치꾼들은 판을 흔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80이 참여하고 마침내 100이 참여한다면 더 이상의 불순한 장난은 불가능해진다. 비로소 애국하기 어려운 민심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 손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인의 지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날 아산시는 명실 공히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성장 도시이다. 우리 지역에서 대한민국 무역 흑자의 60%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아산 정도의 경쟁력과 비전을 갖춘 도시는 없다. 따라서 시장은 물론이요 의회 일꾼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능력과 함께 고도의 윤리감각도 필요하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해야 한다.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연고 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손으로 세운 일꾼들이 감히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 선거에서 주인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 결국 아산의 운명은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 (필)

아산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개최

신임 정거목 아산시의회의장 선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아산시의회(의장 정거목)는 4월 9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38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4월 15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

이다.

아산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인 18,867백만원증액된 756,337백만원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번 제1차본회의에서는 김준배 아산시의회의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아산시의회의장 보궐선거에서 정거목 의원이 아산시의회의장으로 당선되었고, 이와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규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조기행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들의 임기는 제5대 아산시의

회 잔여임기까지이다.

신임 아산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정거목 의원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소중히 여기고 사명과 본분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폐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

아산시의회(의장 정거목)는 4월 15일 제13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0건으로 조례안 14건 중 아산시 상징물관리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시켰으며,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 아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등 7건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추경예산 요구액 756,337백만원 중 일반회계 650백만원을 삭감하여 총예산 755,687백만원을 확정하고, 삭감액 650백만원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토록 의결하였다.

또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

원 선임의 건을 상정, 결산검사위원으로 이기원의원 외 2인을 선임하였고,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및 관광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처리하였으며,

『당진·평택항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여 평택시가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당진·평택항내 외곽호안 매립지를 방택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변경 결정 신청한것에 대한 협회를 요구하는 등 아산시의 대응방

안을 제시하였고 풍기동 지역주민들의 인구증가로 인한 전철이용 편의를 위해 『수도권전철 신설역사(가칭)『풍기역』건립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정거목 의장은 폐회사에서 『70여일 정도 남아 있는 아산시 회회 임기동안 급변 추경에서 승인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일여러분 및 아산시 공직자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것』을 당부하였다.

■ 심의 안건 결과 : 25건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10건]

- 아산시 시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수정가결)
-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원안가결)
-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아산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아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견서 채택)
- 아산 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시행법안(SPC)설립 출자 의결(안)에 대한 의견요청 (의견서 채택)
- 음봉 동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견서 채택)
- 아산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아름다운 U) (의견서 채택)
- 아산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음봉지역) (의견서 채택)
- 아산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음봉동천) (의견서 채택)
- 아산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 요청 (의견서 채택)

아산맑은쌀! 품질을 인정 받았어요.

2010년 충남 우수브랜드 쌀 평가 1위

아산맑은쌀이 2010년 충남 우수브랜드 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충청남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중앙회,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3월 충남 시·군별 9개 대표브랜드에 대해 쌀 품질평가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충남맑은쌀 베스트 7'을 선발했으며, 아산맑은쌀이 총점 500점 만점에 478점을

기록하며 1위로 선발되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충남맑은쌀 베스트 7'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고품질쌀 생산단지 및 시설현대화 등 지원사업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브랜드 판촉 및 홍보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주기로 해 앞으로 아산맑은쌀이 전국 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오양호청원 광장에 마련된 분양소에서 시민들이 청원한 46 용사여 명복을 받고 있다.

현충사 - 온양온천역광장 - 신정호수공원 길따라,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의 예술과 문화의 공간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조성된 역사 주변 및 철도 하부공간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하여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냈었다.

그러나 그동안 시에서 추진되어온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과 역광장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문양과 조형물로 그 맛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온양온천역 하부교각 디자인사업은 하부시멘트교각을 조선시대 왕들의 은

궁행차와 축제, 온천에서의 휴식이라는 3개 테마를 디자인하여 역사와 문화가 담긴 아름다운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재래시장 구간은 종물5일장이 열리는 공간으로 특색있는 작은 무늬들이 전통 문양을 연상시키도록 색과 디자인을 화려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족욕시설 구간은 장수의 상징인 십장생이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곳은 아산의 대표적인 특징인 온양온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족욕탕이 배치되어 있어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 용화 굴다리 구간은 별궁전도 및 조선시대 운궁행차를 형상화한 조형물로 디자인되어 있다.



몸도 즐겁게... 마음도 즐겁게...



온양온천역에 오면 맨 처음 탁트인 잔디광장을 만난다. 광장 가운데에는 시원한 물을 뿜어내는 바닥분수가 온양온천역 광장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한 켠에는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농구장과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으며 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족욕체험장이 있어 온천도시로서 우리 지역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체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장에는 야외무대도 만들어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온양온천역광장이 예술·문화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강한 쉼터가 되고 있다.



▲ 류림동산이 신정호수공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 화사한 봄소식!

원까지...

문화따라 쉬엄쉬엄~~



▲ 충무교에서 현충사까지 1.7km 구간에 폭 2m의 나무데크가 만들어져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된 온행 나무길을 마음껏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곡교천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나라 기대된다. (사진제공: 스포츠조선 김형우기자)

온양온천역 광장이 만남의 장으로...

아산은 지금 웰빙 도시로 건강해 지고 있다. 온양온천역에는 신정호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 되어있어 운동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번 5월 14일에 시작되는 제49회 상웅이순신축제를 기념하여 5월 18일에 이루어지는 백의종군걷기대회도 이곳 온양온천역에서 신정

호까지의 자전거 도로에서 이루어 질 예정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쉼터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웰빙도시 아산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아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리라 기대해 본다.



을 전하고 있다.



▲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자전거도로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신정호수공원까지 이어진다.

시인·기자 리포트

온양신정중학교
새물 연합 동아리 발대식

온양신정중학교(교장 성순택)는 2010년 4월 5일(월) 16:00에 강당에서 온양신정중학교 새물 연합동아리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 총 14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었으며, 학생단원 193 시민기자 이해상 명, 학부모단원 11명, 지도교사 12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동아리 소개 및 동아리 활동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실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가졌다.

새물(新物)연합동아리는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삶의 체험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아리

라는 공동체에서 리더십과 협동심을 함양하고 있다. 봉사동아리인 하얀민들레, 발섬김동아리, 좋은친구, 플레이동아리, 연주봉사를 하는 신나는 난타, 아마빌레(기타) 옥수수카(하모니카), 리조이스(노래 및 오카리나), 뉴 스파(보컬),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정의 메아리, Echo, 발명동아리, 그린레인저 그리고 학부모 봉사동아리인 서포트동아리 등 총 4개 영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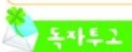
이 날 성 순택 교장은 축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바쁜 와중에서도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동아리를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발대식을 준비한 문미연교사는 "올해는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더욱 기쁘고, 성숙된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얀민들레 회장인 우수진(3-1)은 "봉사 동아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얀민들레는 신창이 하얀민들레라는 장애인 복지 기관에 월 2회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신나는 난

타반은 아산시청 우수청소년 동아리와 향토예술지원동아리로 지원을 받아 이순신 축제공연 및 아산고 육청 대표로 많은 공연과 우리지역 여러 복지관에서 연주봉사를 하였다. 발섬김동아리는 신나는 난타반과같이 활동하면서 공연팀이 공연할때에 발마사지 봉사를 하였다.

2010년에는 이제 동아리를 기초로 하여 더욱 많은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하고자 14개의 동아리를 만들었다. 방과후 학교 교육 활동과 특별활동 중 개발 활동 영역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복지기관과 결연하여 애학심을 높이고 건전한 학생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양신정중학교는 명실공히 학생들이 동아리 공동체 속에서 삶의 질서를 배우고 리더십과 협동심을 길러, 건전한 학생문화를 선도하는 동아리 활동이 요람으로서 가정,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속의 신뢰받는 학교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조훈(하형)

25년전 나는 중매로 남편과 결혼하여 이곳 온양으로 시집을 왔다

남편의 직장관계로 서울에서 시아버님이 얼어죽신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시어머님은 우리가 결혼하기 2년전에 돌아가시고 시아버님 홀로 외로이 사시고 계셨다. 어머님이 안 계신 자리인지라 어수신했다. 모든 일들이 서툴렀지만 그래도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저녁노을이 시골 국쪽에 걸터 앉을시작 쪼저녁을 하려고 낚은 참호지 문을 밀고나가니 대청마루에 천기가 어둠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부엌을 가려고 토방을 내려다 보니 그곳엔 노란 꽃신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장에 가신 시어머님이 꽃신을 사가지고 오셔서 "아가 신발사왔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며느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 조용히 놓고 사랑방부엌에서 군불을 지피고 계셨다.

"아버님 꽃신사오셨네요"

"응 장에 갔다가 하나 사왔다"

아버님의 손은 나뭇가지를 꺾어 아궁이에 넣으시면서 시선은 마저리가 살고 서있는 신발을 바라보셨다

"발에 맞니?"

"네~ 꼭 맞아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은 신발싸이즈를 당신의 뚱뚱한 손가락을 펴서 뻗히고 당신의 손가락 어디메쯤 제고 가셨을까?

꽃신은 맞춤처럼 꼭 맞았다.

꽃신을 바라볼때마다 아버님의 마음속 깊은곳에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바다보다 깊다는 것을 알았다.

몸 약하다는 핑계로 제대로 며느리 역할도 못해드렸는데 세월은 참 많이도 흘렀다. 어느날 아버님은 아침마당에서 하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이 있는 TV를 보시면서 자식들이 나와 노래하는것을 무척이나 부러워하셨다.

다른것으로 효도는 못하더라도 아버님이 작은 소원이라도 들어드리고 싶으셨다. 노래는 못하니 다른 것으로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근로자문화예술제 전국 공모전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근로자들에게 분야별로 금상이상은 해외탐방기회도 주워지고 TV를 통해서 전국에 시상식장면이 방송된다는것을 알고 목표하나를 설정했다.

미술부분에 공모하기로 하고 대작(50호)을 준비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러니 휴일날이나 좀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화실로 향했다.

더운 여름이면 더위와 싸워가며 여름 휴가를 그림그리는 시간으로 투자했다. 허약한 체질로 인해 몸살도 여러번 앓아 가면서도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모습을 떠올리며 목표를 향하여 참으로 열심히 그렸다.

7개월에 걸쳐 완성한 작품을 간접한 기도를 담아 공모전에 출품했고, 결과는 금상 수상이었다. 그리고 모방송곡에 방영되었다.

아버님은 친척분들과 지인들께 일일이 전화를 하셔서 내 며느리가 TV에 나온다며 보라고 하셨단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거나하게 약주하신 아버님의 목소리는 싱글벙글 웃음을 돌돌말아 건네주듯 자랑스럽다며 기뻐하시는 마음을 전해주었다.

효도가 특별하게 아니구나, 자식을 행복하게 길러 주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임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25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연로하시다. 자식도 두리를 주군이라도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긴 세월의 서울생활을 모두 집고 시작점으로 이사를 왔다.

곁에 있으면서 비상이 언제라도 달려갈수있는 거리로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지금도 직장생활로 인해 장거리 출퇴근하는 며느리 고생할까봐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 아버님 모신당시고 곁으로 내려왔지만 아버님을 모시는것이 아니고 아버님께 성감을 받으러 왔나 싶을 정도로 아버님의 사랑깊은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다.

휴일이면 아버님댁에 들러 청소를 해드리고 몇가지 알뜰한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요지만 마음은 늘 부족해서 죄송스런

마음뿐이다. 아산뉴스 신문에 아버님백으로도 배달되어지는 것을 보았다. 지면을 통해서 아버지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아버님께서는 "하나뿐인 내 며느리 내가 아껴야지 누가 아끼냐"고 하시는 사랑깊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아버지

아산시 동북동 성열병

며칠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녀석이 시험준비를 한다며 문제집을 사달라고 했다. 스스로 공부한다며 문제집을 사달라기에 기뻐했다. 아이에게 문제집을 사주고 나니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아산에서 자라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해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아산 토박이로 음봉면 덕지리의 가난한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다. 학교 갈 때 다 주그리니 누런 알미눔 통에 짠 깃털 장아찌나 북은 고추장을 종지에 담아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형편이었다. 그래도 죽기 살기로 공부는 열심히 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 당시 초등학교 같은 반에 우리집과는 비교도 안되는 부자집 친구가 있었다. 그 아이는 늘 성적이 좋았는데 어린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없는 전과(요즘의 참고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노 아버지에게 전과를 사달라고 졸라댔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싸늘했다. "네놈이 공부할 게울리 한거지, 무슨 놈의 전과가 필요하냐 이놈아. 잠을 졸임 생략은 안하구..."

아버지가 야속했지만 별수 없었다. 공부거리며 호시탐탐 김새를 엿보면 어느날, 나는 아버지 퇴침나무로 만든 이른

들의 베게 안에 꼬깃꼬깃 접은 500원짜리 지폐를 슬쩍 했다. 두 눈 짙은 감고 읊내에 1가는 선생한테 부탁해 책을 사다가 슬쩍했다. 공부 할 책을 산거지만 일단 도둑질을 했으니 요즘이 저러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리고 5일후 틀에 나가셨던 아버지가 어디선가 굶은 무궁화 나무를 꺾어 가지고 들어오셨다. "비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지 벗어라"

돈이 없어진 걸 어떻게 아셨는지, 아버지는 무섭게 매를 휘두르셨다. 그리고 3일간 맞은 곳이 너무 아파 걸을 수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전과가 남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다.

그때는 한달에 한번씩 시험을 치렀는데 참고서 덕이었던지 매 맞은 것에 대한 오기로 노력한 결과였는지 내리 석달을 1등을 해버리자 그제서야 아버지는 '전과'의 위력'은 물론 무섭게 휘두른 매에 대한 미안함(?)이 생기셨는지 어느날 내 손을 잡고 읊내 서점으로 데려가셨다.

"팔라라" 무뚝뚝하신 아버지. 그래도 아들을 위해 책을 사주려 거기까지 나오신거다. 슬쩍 눈물이 나왔다. 아버지는 전과는 물론 수련장과 문제집을 사들고 싱글벙글 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하음을 보셨다.

아버님이 다가오는 오늘 문득, 자식놈 하나 제대로 가르켜 보셨다시며 고생스럽게 일만 하셨던 아버지가 그리워진다.

노인개안수술사업 안내

- ▶ 사업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12월 (10월)
- ▶ 사업대상 : 60세이상 노령자
- ▶ 대상 질환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수술대상 질환
 - 백내장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안과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문의 : 아산시보건소 진료팀 ☎ 537-3444

지역별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 대 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전문 대상자
- 업 종 : 소매업
- 인 원 : 20명(소매업 : 20명)
- 신청기간 : 2010년 4월 28일 ~ 5월 18일
-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www.sbc.or.kr), 충남지역센터방문
- 신청서류 : 교육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환불용 통장사본
- 교육기간 : 2010년 5월 18일 ~ 6월 18일 (80시간)
- 교육장소 :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구, 아산시청)
- 수강료 : 5만원(입금통장번호 : 농협(제)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U1-0006-2148-11)
- 대상자지정 : 서류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20명 선정
- 신청문의 :
 - 아산센터 ☎ 532-0091, 현안센터 ☎ 567-5302
 - 공주센터 ☎ 852-1183, 논산센터 ☎ 733-5064
 - 서산센터 ☎ 663-4981, 홍성센터 ☎ 633-4981

2010 백의종군 걷기대회 안내

- 행사일 : 2010. 5. 18(화) 15:00~17:00
- 집결지 : 온양온천역
- 코 스 : 온양온천역-신정호(자전거도로 2.85km)
- 문 의 : 문화재단 축제팀 ☎ 540-2602



Your Vacation 방학

Dialogue:

A: How was your vacation?
방학은 어땠니?

B: I went to (place). 나는 _____에 갔어요.
I went sailing. 나는 항해를 했어요.
I went hiking. 나는 등산을 했어요.
I went SCUBA Diving.
나는 스쿠버 다이빙을 했어요.
I went shopping. 나는 쇼핑을 했어요.
I went to visit relatives. 나는 친척을 방문했어요.
I went to watch a movie. 난 영화를 보러 갔어요.
It was very nice. 그것은 아주 멋졌어요.
It was just right. 그것은 아주 좋았어요.
It was too short. 그것은 너무 짧았어요.

▶ 제공 : Paul Sweeney, Soonchunhyang University
http://www.sch.ac.kr

불철 범죄민 대청소 실시

- 일시 : 2010. 5. 3 ~ 5. 13 (매주 목요일) 10:00 ~ 12:00
- 대상지역 : 성웅이순신축제행사장 주변(신정호관 광지, 온양온천역 주변 등) 주요도로변, 하천, 나대지,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 참여대상 :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단위 기관·단체, 학교, 일반시민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안내

금년 2월 1일부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신문,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 하는 사업자는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어 등 법 시행 후 5월 1일까지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 신청서 제출(관할 시·도) → 검토·확인(지리지 간 25일) → 등록증 교부

▶ 제출서류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개인의 경우) 및 기사발행책임자의 기본증명서
- 정관 또는 단체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및 단체의 경우)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일자리를 찾아 드립니다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구직자분에게는 실속있는 취업관련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구인업체에는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신속하게 알선했 드립니다.

- 장소 : 시민문화복지센터 2층-구경철서(아산시 온천동 94-6)
- 대상 :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민 및 구인업체
- 문의 : ☎ 540-2880-1

※ 매주 화요일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온양2동 제4회 통장협의회 경로잔치 안내

- 일시 : 2010. 5. 15(토) 10:30
- 장소 : 온양2동 주민센터 앞 어린이공원
- 행사대상 : 지역 어르신 500명
- 행사내용 : 식전 행사 및 공연, 중식 및 다과
- 문의 : 온양2동 ☎ 537-3721

대형폐기물 처리 인터넷 신청 제도

▶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냉장고, 폐가구 등과 같은 쓰레기(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기타 등 4개 분류 96개 품목)

▶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고려 사항

재활용 가능한 제품은 이웃에게 주거나, 가까운 재활용 매장에 인계하여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 ① 인터넷(waste.asan.go.kr) 또는 아산시 홈페이지(www.asan.go.kr) 민원정보-대형폐기물처리 링크-신청하기 접속, 수수료결제 후 신고필증 출력 또는 지정판매소(슈퍼), 읍면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
- ② 신고필증 /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폐기물에 부착한 후
- ③ 수거업체에 배출 사실을 통보(인터넷 신고 시 불필요) 후 쓰레기 배출장소에 내 놓으시면 24시간 이내 수거처리(공동주택은 자체 지정일에 배출)



▶ 연락처

- 청소과 : ☎ 540-2338
- 수거업체(우형실업) : ☎ 544-2525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 행사 참가신청

- 일시 : 2010. 6. 8 (월) 11:20 ~ 15:00
- 장소 : 청양 공설운동장(우천시 청양 군민체육관)
- 신청대상 : 스승을 모시고자 하는 개인·단체·학부모·학생 등 모두
- 행사내용 : 의식행사 및 축하공연, 장기 및 노래자랑 등
- 주관 :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후원 : 충청남도)
- 신청기간 : 2010. 4. 13~5. 24(42일간) - 참가신청서 작성 제출
- 문의 : 주민자치과 새마을팀 ☎ 540-2049

▶ 2010 야간 건강체조교실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0. 4. 26 ~ 9. 30 (주 3회) 19:30~20:30
- 대 상 : 아산시민 누구나

일 자	소 재 지	기 간	운영일
아산시청야광공원	온천동		월, 수, 금
이순신종합운동장	풍기동		월, 수, 목
용화초등학교운동장	용화동	4.26~9.30	월, 수, 목
배방초등학교운동장	배방 북수리		월, 화, 목
온양제일교회주차장	권곡동		월, 화, 목
문포초등학교운동장	문포 문포리	4.27~9.30	화, 목, 금
신정호국민관광단지	방축동	5.3~10.7	월, 수, 목

▶ 5월중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

일 자	순회마을	일 자	순회마을	일 자	순회마을
5. 10(월)	송하외삼리	5. 11(화)	평동동삼리	5. 12(수)	송하동삼리
5. 13(목)	문포신남리	5. 14(금)	영인동삼리	5. 17(월)	인주동삼리
5. 18(화)	선강신남리	5. 19(수)	도고동삼리	5. 20(목)	신동삼리
5. 24(월)	온양동삼리	5. 25(화)	영지동삼리	5. 26(수)	배방동삼리
5. 27(목)	송하동삼리	5. 28(금)	평동동삼리	5. 31(월)	송하동삼리

▶ 문의 : 농업기술센터(지도기획팀) ☎ 537-3806

6월 2주(수) 동시지방선거

한 사람이 어떤 당 투표?
복잡하겠네...

넌 장력 두 번 투표하니까
삼 겹표잉~

1인 8표, 이렇게 투표합니다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



5월은 가정의 달! 축하행사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5월은 계절의 여왕이란 말이 참 잘 어울린다. 화창한 날씨와 싱그럽게 핀 튼リップ도 5월을 여왕이라 부르기에 충분하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도 기분 좋게 불어 닦는 그런 계절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를 단다면 그건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족을 5월 내내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 일거다. 누군가 임의로 만들었던 아니면 너무나 부족해서 그날 만은 지키자고 한 약속이건 그런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과

지 소중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 할만하지 않은가?

시는 제88회 어린이날에 신정호국민관광단지에서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과 비보이 공연, 아산양상불 공연이 열리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대형 비누방울 놀이, 인공점토를 이용한 점핑클레이체험, 전통 민속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딱지집기 등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또한 제38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5월 7일 신정호국민관광단지에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부터 시작된다. 시립합창단공연과 어린이집 재롱잔치, 국악공연이 이어지고 건강홍보관이 운영되며 추억의 먹거리에서 떡메치기, 뽕튀기, 솜사탕을 맛 볼 수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력검사도 해드리고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윷을 던져보며 잠시 동심으로 돌아 갈 수도 있다.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이다.

제2회 아산시부부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일 하루 전인 5월 20일 시민생활관

에서 열린다.

모범부부 250쌍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념행사에 7080콘서트와 아산필하모니의 문화공연이 있고 방송인 이숙영이 아산을 찾아 “행복한 결혼생활! 잠자는 사랑과 성공을 깨워라!”라는 주제 강연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잠시 틈을 내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건전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이룬다는 관점에서 가족끼리 건전가정 만들기 구호라도 만들어 외쳐보는 특별한 5월을 보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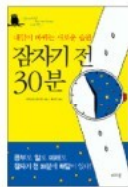
5월 문화공연, 전시, 체육행사 안내

행사명	일시	장소	문의
어린이날 기념 축하공연	5. 5(수) 09:00	신정호관광지	540-2823
어버이날 기념 축하공연	5. 7(금) 10:00	신정호관광지	540-2837
아산산록회 호실친대회	5. 9(일) 14:00	시민생활관	010-4424-735
부부의 날 기념 축하공연	5. 20(목) 15:00	시민생활관	540-2979
찾아가는 문화공연	5. 21(금) 17:30	온양온천역	540-2822
제20회 화원음악회	5. 27(목) 19:30	시민생활관	010-5135-7123
충남소년소녀합창축제	5. 29(토) 18:00	시민생활관	010-9840-9182
모시, 자연색으로 피어나다	5. 31(일)~6. 9(수)	시민문화복지센터 갤러리	011-422-9919
체육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제2회 이충무공배 전국사회인아구대회	5. 15(토) 10:00	시민체육공원 (곡교천)	전국 32개 클럽
2010 스마트아산 슈퍼리그축구대회	5. 23(일) ~ 주말리그전	이순신종합운동장	500여명 참여

▲ 상기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잠자기 전 30분

저자 다카시마 데쓰지
출판사 티즈맵
왜 잠자기 전 30분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잠의 메커니즘과 잠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저자 반기문
출판사 21세기 북스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이 세계의 청소년에게 전하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 청소년이여, 꿈을 쫓아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 이 꽃을 드립니다!!

아카데미

EDU-MOM 프로젝트

이제 부모도 공부합시다!

- 교육장소 : 시청 시민홀
- 교육일시 : 2010년 5월 ~ 7월
- 조정강사 및 교육주제
 - 5월 19일 : 유태영 박사 "천재를 만드는 유태영의 가정교육법"
 - 6월 16일 : 서형숙 대표 "좋은 교육, 좋은 세상"
 - 7월 21일 : 문용린 교수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
- 참석대상 : 아산시민(선착순 수강신청자 400명)
- 신청기간 : 5월 3일 ~ 5월 14일
- 수강신청 : 시청 총무과 능력개발팀 ☎ 540-2050